

“밥 한 그릇도 감사하라”

백 명의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한 분위기가 이리저리 없었을까? 라는 감회도 있었다.

2004년에는 담선대법회(談禪大法會)를 개최했다. 동화사 '담선대법회'는 한국 현대 조계종 선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 해인 2005년에는 현대불교신문사와 함께 '계율수행 대법회'를 열었다. 지성 스님은 계율법회가 공문화와 열리기는 근·현대사를 통틀어 처음이었던 것으로 인하고 했다.

“율사들이 계율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테러, 전쟁, 빈곤, 인종차별, 인권유린, 환경훼손 등 수많은 문제 해결책이 불교 계율에 담겨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회의 도덕률 감증과 무너지는 윤리의식을 계율을 통해 치유해 나가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스님의 이러한 원력과 추진력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하여 여쭙었다. 지성 스님은 “나를 버리고 맑은 바 소임을 충실히 간절히 잘 하겠다는 발원을 하면 이 정도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말씀을 이어갔다.

“내 인생관은 간단명료합니다. ‘-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중은 중답게, 주지는 주지답게, 염불승이면 염불승답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자기의 본분사에서 이탈하지 않고 산다면 일을 크게 그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스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거뜬히 이루어낸 그 밑바탕에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도구수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지성 스님은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불교사회단체인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함께하는 세상’은 국제포교 및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아타’ 사상을 근본으로 만들어진 단체란다.

‘함께하는 세상’ 산하 사찰인 ‘이웃집’은 대구지역 최초의 국제포교당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수행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웃집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이기엔 한국불상, 몽골불상, 스리랑카불상 3개국 석가모니불을 모셨다. 그리고 이주인들을 위해 몽골과 스리랑카 스님들의 집전으로 매월 두 차례 정기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지성 스님이 이주민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스님을 찾아와 후원을 부탁하던 몽골 학생들과의 만남이 인연이 됐다. 이후 한·몽골불교 교류협회를 설립하고, 몽골불교유치원 건립을 지원하는 등 몽골 불교계와 긴밀한 연대를 이어오며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것이 계기가 돼 몽골뿐 아니라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노동자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주노동자 지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지 않아서, 법당과 이주민쉼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도 많기에 대신해서 사무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직장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들이 절을 찾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에도 눈을 돌려 이주민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것도 불자들의 역할입니다.”

지성 스님은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2007년 ‘국토사랑 금강경 사경순례’를 시작했다. <금강경>을 사경(寫經)하며 전국 주요 사찰 33곳을 한 달에 한 번씩 순례하는 것이다. 2년9개월의 대장정중 벌써 중반을 넘어섰다. 순례동참자들은 1000일 동안 매일 <금강경>을 한 분(份)씩 사경하고 발원문을 낭독하는 수행생활을 하는 것이란다.

“눈으로만 보던 경전을 손수 베껴 쓰게 되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깊이 이해하다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요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심이 필요합니다. 유무의 복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니, 무한한 무무의 복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요즈음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경제를 비롯해 외적인 요소에 쫓달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여쭙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즈음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처럼 웃이 없는 것도 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돈과 출세를 위해서 산다면, 자신의 고통이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라면 문방석에 앉아있어도 배고프고 불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살기에 풍요로워도 풍요로운지를 몰라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질이 아닌 에너지라 할 수 있으며, 육신은 정신 에너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였다.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뇌한다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라는 지성 스님의 이 한마디는 풍요로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의미 있는 화두이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6. 청담 대선사

청담(1902~1971) 대선사는 진주사람이다. 1962년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종교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초청된 분들이 청담 스님, 박종용 교수, 서정주 시인, 이기영 박사 네 분이였다. 한 분이 40분씩 2시간 40분 동안 강연하고, 질문을 각기 20분 받기로 하여 오후 6시에 끝나게 되어 있었다. 맨 처음 올라간 청담 스님께서 4시간 동안 통째로 다 강연을 하셨다.

“나는 1902년 진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7세에 진주고보에 들어가 3·1운동에 앞장섰다가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진주농고 재학 중 여류문학 때 근교 호곡사에 놀러 갔다가 포명 노사를 만나 불교이야기를 듣고 해인사, 백양사 등으로 용성 큰스님을 좇아 다녔

이 없었다. “1937년 내 나이 36세 때 운허 스님과 선학원에서 유교(遺敎)법회를 열려하니 31년산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종로경찰서에서도 ‘하지 말라’ 협박했으니 끝까지 굴하지 않고 10일 동안 계속하니 만공, 동산 스님 등이 도와주어 성황리에 마쳤다.



보고 웃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가지 않고 있는가?”

뒤를 돌아보더니, “우머, 다 가 버렸네”하고 눈을 비비고 일어섰다. 그동안 잠이 들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5시 50분쯤 패서 옆에 다방에 오니 그때까지 이기영 박사님과 서정주 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안가고 있습니까?” “스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허 세월이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보아도 춘향이고, 뒤로 보아도 춘향입니다.” “참으로 도인의 소리요.”

하고 떠났다. 이분이 바로 청담 스님이다.

그 뒤 스님은 1964년 동국학원 이사장, 도선사 주지, 1966년 조계종 총회위원장, 1966년 통합종단 종정, 1967년 장로원장, 대한민

수행·행정 등 다방면에 뚜렷한 족적... ‘인욕 보살’의 귀감

다. 하지만 만나볼지 못하고 23세에 진주농고를 졸업하고 26세에 일본을 다녀와서 고성 육천사 규영 스님께 출가했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시간 걸렸다. 주책 측에서 쪽지를 보내 ‘시간이 넘었다’고 알려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는 계속했다.

“그해 10월 서울 개운사에 올라와서 50여 청년 스님들과 전국 학인대회를 결성하고 일본의 종교정책을 비난하였다. 1930년부터 개운사 강원에서 박헌영 스님께 대교과를 수료하고 금강산 유점사, 상원사, 해인사 등에서 7년간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인욕행을 닦았다.”

여기까지가 또 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자기 시간이 넘어간 박종용 박사님께 서는 그만 돌아가시고 청중들도 3분의 1 정도는 빠져나갔다. 주관자 이기영 박사가 뛰어다니며 몇 번인가 말씀 드렸지만 소용

8·15 해방 후에는 교단의 재건과 불법의 중흥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고성 문수암, 합천 해인사 등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도제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53년 만암 스님이 종명을 조계종으로 고치고, 교화승과 수행승으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정화를 시도하자, 효봉 스님과 함께 선학원에서 제1차 수좌대회를 열어 대처승을 정화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까지가 세 시간 걸렸다. 그 후 1955년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이 되고, 1956년 제4차 세계불교도대회에 참석차 네팔에 다녀온 이야기, 중앙총회 의장이 되었다가 합천 해인사 주지가 되고, 1958년과 1961년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하자 청중들은 모두 나가 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남이 있었다. 천정만

척다 보며 이야기 하다가 내려다 보니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을

국종교인협회 의장, 1970년 총무원장, 1971년 국민회의 의장을 해 국민총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71년 11월 도선사에서 나이 70, 법랍 46세로 입적하시니 한국불교에 꽃바람이 잤다.

나는 고성 문수암에서 한 차례 회은일이 있고, 서울 총무원에서는 여러 차례 뵈오 특별히 지도를 받은 일은 없다. 그러나 훗날 한 키테 오조 장삼을 입고 육환장을 들고 대중 앞에 나서면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님의 주위에는 몇 사람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 다녔으나 대부분 퇴색하고 유일하게 시봉을 잘한 해성 스님이 도선사 주지가 돼 사제들을 데리고 청담

종교등학교, 해명영로원 같은 것을 잘 운영해 스님의 덕망이 후세에까지 빛나게 된 것이다. 스님은 의인이요, 철저한 정치승려로 무언고 한번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실천하고 마는 성미를 가졌었다.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土)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子)액운(厄)착귀(宅)정단법
- * 취직(職)시험·승진(進)시험의 합격(合)판단법
- * 선거(選)후보(後)당선(選)벼슬(祿)하는 여부(有)판단법
- * 관청(官)·공무(公)원(源)빈자(貧)리(理)입관(入)가능(能)여부
- * 소송(訟)·관재(官)사의(事)승패(勝)판단법
- * 보고(報)싶은(人)사람(人), 기다리(待)는(人)사람(人)소식(息)가능(能)일
- * 가출(家)자가(者)언제(時)쯤(時)집(家)에(에)돌아(來)올(올)까?
- * 잃어(失)버린(物)본신(本)물(物)위치(位)추정(推)법
- * 도주(盜)·도망(逃)간(間)사람(人)이(이)어느(어)쪽으로(로)갔(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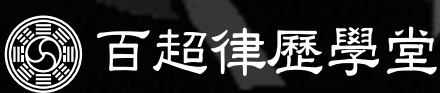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宗)원(源)귀(鬼)법
- * 12신궁에 암장(暗)된(된)악(惡)령(靈)귀(鬼)신(神)
- * 귀장(歸)술(術)歸藏(歸)術로(로)보는(看)前生(前)투(投)시(時)법
- * 前生(前)의(의)夫(夫)婦(婦)인(人)연(緣)원(源)침(沈)살(殺)이(이)現生(現)에(에)미(미)치(치)는(는)현상(現)상
- * 귀장(歸)술(術)歸藏(歸)術로(로)뽑(뽑)는(는)빙(氷)의(의)착(着)귀(鬼)신(神)법
- * 귀장(歸)술(術)歸藏(歸)術로(로)뽑(뽑)는(는)사후(死)後(後)환생(還)생(生)귀(鬼)신(神)착(着)해(解)론(論)
- * 산소(山)·무덤(墓)에(에)관(觀)해서(는) [음택(陰)법]
- * 무덤(墓)안(안)유골(遺)골(骨)의(의)현(現)상(相)상태(態)알(알)아(아)내(내)는(는)법

글·백초스님
상·하권/720면/정가 각20,000

심지성(沈智性) 래정(來正)비법(秘法) 전수(傳授)생(生)모(模)집(集)

사주(四柱)를 뽑지 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點)괘(卦)로 쉽게 푸는 법

11명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떨어 예약가능)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